

유비쿼터스 관련 특허정보 제공 사이트 개설

최근 인터넷 혁명을 넘어 IT 기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상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연구소와 기업 및 대학교의 전문인력과 특허청 심사관들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를 구성하여 화제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서 일상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 칩 및 송수신기를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였다면 유비쿼터스는 초소형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물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patent.or.kr>)는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특허정보 및 특허원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에 관한 주요 특허기술을 분석한 특허분석정보와 주요 특허기술로 선정된 특허원문자료를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어느 국제특허분류(IPC)에 분포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연구개발자가 직접 특허정보를 검색할 경우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정부정책자료 및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하여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특허정보자료를 문의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전 세계의 유비쿼터스 관련 주요특허기술을 발굴·분석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R&D에 대한 중복투자 및 특허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수천 건에 이르는 한·미·일 세 나라의 유비쿼터스 관련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초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캠퍼스에도 브랜드 열풍 분다

국내 대학 및 학교법인의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던 상표출원이 '00년을 고비로 '01년 1백60건 출원으로 전년 대비 55.3% 급증한 것을 비롯하여 '02년 1백95건(21.9% 증가), '03년 2백34건(20% 증가), '04년 5월말 현재 1백2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총 1천5백93건의 출원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 학교는 학교의 마크, 로고 및 수익사업을 위한 다양한 표장들을 상표로 출원하고 있으며, 출원건수를 순위별로 보면 고려대학교가 1백96건의 출원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연세대학교 1백61건, 삼육대학교 1백42건, 이화여자대학교 64건, 중앙대학교 58건으로 각각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등록건수는 고려대학교가 1백96건, 연세대학교 1백54건, 삼육대학교 1백18건, 중앙대학교 57건, 한남대학교 53건 등이다.



특히 이들 상표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연세우유(발효유, 마가린 등 유제품, 약품, 의료업), 삼육대학교의 삼육두유(콩, 포도 등 식품류, 의료보건업), 건국대학교의 건국햄(우유,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 치즈 등 축산물), 한남대학교의 특허법무서비스, 경희대학교의 한방의료서비스 등의 출원은 대학들도 학교재정과 관련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총 1백96건의 특허를 출원한 고려대학교 심볼. 최근 대학들이 학교를 홍보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학교 심볼을 특허출원하는 수가 많아졌다.

국내 대학들의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홍보, 우수 인재의 유치,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운영, 상표분쟁의 예방 등 상표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를 1건 이상 출원한 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전체 대학 및 학교법인(전문대학 이상 법인) 수(약 3백68개)의 35.6%인 1백31개 학교(법인)에 불과하여 보다 많은 대학들이 상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국내출원은 지금까지 1백98건(등록 1백55건)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연평균 10여건씩 꾸준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34건(등록 30건), 하버드대학 30건(등록 20건), 프린스턴대학 15건(등록 15건)의 순으로 출원하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이 35개 대학에서 1백71건을 출원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국의 5개 대학이 25건을 출원하였다.

한국과 일본, 이번엔 과자 특허분쟁

크라운제과(이하 크라운)와 일본 모리나가가 과자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 7월 14일 제과업체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제과업체 모리나가 크라운의 소프트캔디 신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체적인 해명을 크라운측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모리나가는 지난달 말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크라운의 '마이썸'이 일본 모리나가의 소프트캔디인 '하이썸' 제품을 모방했다는 내용 증명서를 크라운측에 발송했다.

마이썸은 크라운이 지난 5월 캐러멜류 캔디의 제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내놓은 소프트캔디 신제품으로 입에 달라붙지 않는 특성을 앞세워 인기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리나가는 내용 증명서에서 '크라운의 마이썸(MYCHEW) 상

표가 모리나가의 하이썸(HI-CHEW) 상표와 유사하고 제품 포장도 흡사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마이썸 제품포장 및 상표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모리나가는 또 '마이썸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현 유통제품 전체 수거 및 재고품 모두 폐기와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은 이에 필적 뛰며 반발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서 '두 제품의 유사부분은 'CHEW' 부분으로 이는 씹다, 깨물다, 바수다 등의 의미로서 그 제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두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MY'와 'HI' 역시 외관 및 발음에 있어 유사성이 없다'면서 상표를 모방했다는 모리나가의 주장을 일축했다.

크라운은 또 '신제품 마이썸이 소프트캔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위협을 느낀 모리나가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최근 특허분쟁에 휘말린 크라운제과의 '마이썸(왼쪽)'과 일본 모리나가의 '하이썸(오른쪽)'. 이번 한국과 일본의 상표 분쟁으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9개 대학, 지재권 인터넷강의 통해 학점 취득

대학생들이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를 통해 지식재산권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인하대, 한남대, 영동대, 한밭대, 서울정수기능대학, 대전대, 부경대, 김천대, 전남대 등 국내 9개 대학에 올 2학기부터 인터넷 지식 재산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교육협력'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 학생은 '특허명세서 작성, 전자출원 실습' 등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가 개설한 57개 과

정을 인터넷을 통해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난 '02년에 개설한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변호사·변리사·특허전문인력 등이 실무위주로 무료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는 협정체결 대학의 교수들을 교재 개발과 발명 칼럼 집필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 외에 고려대, 순천향대 등도 지재권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 중이다.

제 편 안내

- 3 상상의 날개를 달자! '대한민국 발명콘텐츠 공모전'
- 4 특허넷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다
- 5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6 특허기술의 길잡이 '특허지도(Patent Map)'
- 9 인물 FOCUS·모티브강 강희순 대표
- 10 사천고등학교 발명공작교실
- 14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